

# 축구 전설들 '꿈의 라인업'

## 펠레·마라도나에 메시·호날두까지... 발롱도르 드림팀 발표

시대를 초월해 역사상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들로만 꾸린 '꿈의 라인업'이 탄생했다.

프랑스 축구잡지 프랑스풋볼은 15일(한국시간) 전·현직 축구 선수들을 총망라해 베스트11을 구성한 '발롱도르 드림팀'(Ballon d'Or Dream Team)을 발표했다.

발롱도르는 프랑스풋볼이 매년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를 선정해 주는 상이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의 대유행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을 맞아 1956년 발롱도르 제정 이후 64년 만에 처음으로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프랑스풋볼은 시대를 아우르는 '드림팀'을 선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프랑스풋볼은 일단 지난 10월에 포지션별 후보

10명씩을 추려 공개한 뒤 전 세계 기자 140명의 투표로 꿈의 팀을 완성했다.

발롱도르 드림팀은 3-4-3 포메이션으로 구성했다.

스리톱에는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득점왕(8골)에 오르며 브라질을 우승으로 이끈 호나우두를 중심으로 좌우에 호날두(포르투갈·유벤투스)와 메시(아르헨티나·바르셀로나)가 배치됐다.

드림팀에서 현역 선수로는 돌본인 메시(6회)와 호날두(5회)는 발롱도르 역대 수상 횟수에서 1, 2위에 올라 있다.

미드필드는 공격형과 수비형으로 나뉜다.

브라질의 '축구 황제' 펠레와 지난달 말 심장마

비로 별세한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 마라도나가 공격형 미드필더에 뽑혔다.

보비 찰턴(잉글랜드), 미셸 플라티니, 지네딘 지단(이상 프랑스), 지쿠(브라질), 로베르토 바조, 프란체스코 토티(이상 이탈리아) 등 세계 축구를 호령했던 슈퍼스타들도 펠레와 마라도나에 는 밀렸다.

수비형 미드필더로는 사비 에르난데스(스페인), 로타어 마테우스(독일)가 선택됐다.

수비진에는 파울로 말디니(이탈리아), 프란츠 베크엔바워(독일), 카푸(브라질)가 포진했다.

드림팀 골문은 전설적인 골키퍼 레프 야신(러시아)이 지킨다. 옛 소련 출신인 야신은 발롱도르를 수상한 유일한 골키퍼다. /연합뉴스



프랑스 축구잡지 프랑스풋볼이 15일 펠레, 디에고 마라도나, 리오넬 메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등 전·현직 축구 선수들을 총망라해 베스트11을 구성한 '발롱도르 드림팀'을 발표했다. 발롱도르는 프랑스 풋볼이 매년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를 선정해 주는 상이다. /연합뉴스



미케일라 시프린이 15일 프랑스 쿠셰벨에서 열린 FIS 알파인 월드컵 여자 대회전에서 우승한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시프린 11개월만에 스키 월드컵 우승

미케일라 시프린(미국)이 11개월 만에 국제스키연맹(FIS) 월드컵 정상에 올랐다.

시프린은 15일(한국시간) 프랑스 쿠셰벨에서 열린 2020-2021 FIS 알파인 월드컵 여자 대회전에서 1, 2차 시가 합계 2분19초63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2위 페데라가 브리노네(이탈리아)의 2분20초45를 0.82초 차로 따돌렸다.

시프린이 FIS 월드컵에서 우승한 것은 올해 1월 불가리아에서 열린 슈퍼대회전 경기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그는 2월 아버지 제프가 갑자기 사망하며 이후 한동안 대회에 나오지 못했고, 2019-2020시즌이 코로나19 때문에 조기 종료되면서 그대로 시즌을 마감했다.

지난달 핀란드에서 열린 월드컵 회전 경기에 출전, 약 10개월 만에 월드컵 무대에 복귀한 시프린은 두 차례 레이스에서 2위와 5위의 성적을 냈고 이번 주 대회전에서는 이를 전 4위에 이어 복귀 후 네 번째 레이스 만에 시상대 맨 위에 서게 됐다.

시프린은 또 월드컵 통산 67승을 달성, 마르셀 히르셔(오스트리아)와 함께 알파인 월드컵 최다승 부문 공동 3위가 됐다.

시프린보다 많은 월드컵 우승 횟수를 보유한 선수는 남자부 잉에마르 스텐마르크(스웨덴)의 86승, 여자부 82승의 린지 본(미국) 두 명이 전부다.

남자부 1, 2위인 스텐마르크와 히르셔, 여자부 최다승 기록 보유자 본은 모두 은퇴한 선수들이다. /연합뉴스

## K리그 비율형 샐러리캡·로스터 제도 도입

### 이사회 열고 경영 효율화 논의 승리수당 경기당 100만원 제한

K리그 구단들의 재정적 어려움 해결을 위해 '비율형 샐러리캡 제도', '로스터 제도'가 도입된다. 승리수당 상한선도 마련돼 K리그1은 경기당 100만원으로 제한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억원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15일 2020년도 제8차 이사회를 열고 K리그 경영 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단 경영수지 악화 속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2023년 '비율형 샐러리캡 제도'가 도입된다.

'비율형 샐러리캡'은 구단의 총수입 규모에 따라 구단별 연봉 상한선이 달라진다. 초과비율에 따라 '사치세'가 부과되며, 징수된 '사치세'는 각 구단에 재분배된다.

2023년부터 '로스터 제도'도 시행해 단계적으로 등록선수수를 일정 수 이하로 제한할 방침이다.

2023년 32명, 2024년 30명, 2025년 28명으로 하며 등록 로스터 내에는 일정 인원의 U22 선수와 구단 산하 유스팀 출신 선수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비율형 샐러리캡**  
스페인 라리가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구단의 총수입 중 선수단 인건비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다.

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2021-2022년 '승리수당' 상한선을 K리그1은 경기당 100만원, K리그2는 경기당 50만원으로 제한한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수당(베팅)은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K리그1 최대 10억원, K리그2 최대 5억원의 제재금을 부과한다. 적발된 날로부터 가장 가까운 1회의 등록 기간에 신규 선수 등록도 금지된다.

상한선을 초과하는 승리수당 지급 또는 베팅 사실을 제보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K리그의 마케팅 및 세일즈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연맹 산하에 마케팅 전문 자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연맹의 100% 자본 출자를 통해 설립되는 마케팅 자회사는 ▲스폰서십 관리 및 확대 ▲통합마케팅 분석 ▲K리그 활성화 및 수익 창출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 운영 ▲K리그 브랜드 관리 및

가치 향상 등의 역할을 하며, 향후 유상증자를 통해 구단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2021시즌부터 K리그 구단이 '프로B팀'을 운영할 경우 K4 리그에 참가할 수 있다.

젊은 선수들의 공식 경기 출전 기회 확대를 위한 것으로 각 구단은 R리그(2군 리그) 운영 또는 별도 B팀을 구성해 K4 리그에 참가하는 방안 중 선택할 수 있다.

'프로B팀'은 11명의 출전선수 중 23세 이하 선수가 7명 이상이어야 하며, 프로 경기에 출장한 횟수가 기준을 초과하면 B팀 참가가 제한된다.

2021년부터 22세 초과 국내 선수에 대해서는 구단별 5명 이하의 선수만 K리그 내 타 클럽에 임대·임차할 수 있다. 같은 클럽 간에 임대·임차할 수 있는 선수의 숫자는 1명으로 제한된다.

상무 입대로 인한 입대는 예외로 하며, 22세 이하 선수의 입대는 무제한 허용된다. 임대 및 이적 계약서에 '원소속 구단과의 경기 출전 불가' 조항을 넣는 것은 금지한다.

이사회는 이외에 선수규정 및 경기규정에서 불분명했던 부분에 대한 개정안, 총재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도 의결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ACL 8년만의 우승 도전 울산 "마지막 고개 넘자"

### 19일 이란 페르세폴리스와 결승전 우승상금 44억... 부와 명예 한손에

8년 만의 아시아 프로축구 정상 탈환에 도전하는 울산 현대가 이제 마지막 한 고개만 남겨뒀다.

울산은 19일 오후 9시(한국시간) 카타르 알와크라의 알자누브 스타디움에서 페르세폴리스(이란)와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결승전을 치른다.

최근 네 시즌 연속 이란 프로축구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한 강호 페르세폴리스와 단판 대결에서 승리한다면 울산은 대회 첫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2012년 이후 8년 만에 다시 아시아 프로축구 챔피언이 된다.

명예뿐이 아니다. 주머니도 두둑해진다. ACL 우승 상금은 400만달러(약 44억원)다. 울산은 결승 진출만으로 이미 준우승 상금 200만달러(약 22억원)를 확보했다. AFC가 대회 우승·준우승

상금의 5%를 'AFC 드림 아시아 재단'의 활동에 쓸 기금으로 적립한다고 해도 울산은 이미 올해 정규리그와 FA컵 준우승으로 받은 상금을 훌쩍 뛰어넘는 가뭄돈을 챙길 수 있게 됐다.

K리그1 상금은 우승 5억원, 준우승 2억원이고 FA컵 상금은 우승 3억원, 준우승 1억원이다.

ACL에서는 상금뿐만 아니라 조별리그에서 경기당 승리 시 5만달러, 무승부 시 1만 달러의 성적 보너스를 지급하고 이후 16강 10만달러, 8강 15만달러 4강 25만달러의 출전 수당도 얹어준다.

조별리그에서 5승 1무(26만달러)를 거둔 울산은 준우승 상금의 5%를 때도 현재까지 최소 266만달러(약 29억원)를 챙길 수 있게 된 셈이다.

페르세폴리스만 꺾으면 우승 상금에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 참가 자격이 주어지면서 수입은 훨씬 더 늘어난다. FIFA 클럽 월드컵은 해마다 6개 대륙 클럽대항전 챔피언과 개최국 리그 우승 팀이 한데 모여 세계 최강 프로축구팀을 가리는 대

회다. 카타르에서 열린 예정인 올해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탓에 2021년 2월 1~11일로 미뤄졌다.

리버풀(잉글랜드)이 창단 이후 처음 정상을 차지한 지난해 클럽 월드컵의 우승 상금은 500만달러, 준우승 상금은 400만달러였다.

3위부터 7위까지도 각각 250만달러, 200만달러, 150만달러, 100만달러, 50만달러를 받는다.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은 먼저 개최국 리그 우승팀과 오세아니아 챔피언 간 1라운드를 벌이고 나서인 2라운드부터 치르게 돼 대회 참가만으로도 최소 6위, 즉 100만달러는 손에 넣게 된다.

아울러 클럽 월드컵은 세계 축구 팬 앞에 구단 및 선수의 이름과 가치를 드러내 보일 무대라는 점에서 참가팀에는 더욱 가치가 있는 대회다.

울산은 올해 국내에서는 두 번의 준우승으로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런 울산이 ACL에서는 '반전 드라마'로 명예와 부를 한 손에 넣은 채 2020년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장로관

즐거움  
문화  
산책

스윙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조제
2관	도굴
3관	스웨그, 레벨 16, 잔칫날
4관	조제
5관	런
6관	이웃사촌
9관	이웃사촌
7관	세네카를 러브 액츄얼리, 스카이의 친구들, 로보시터의 비밀
8관	세네카를 삼진그룹 영어토의반, 더 프롬, 프리키 데스데이 순환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시간 속의 도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작가지원 공모전시

시간 속의 도시

2020. 12. 3.(목) ~ 27.(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잠자는 숲 속의 미녀

광주시립발레단 제127회 정기공연

잠자는 숲 속의 미녀

2020.12.18(금) ~ 20.(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선우예린 피아노 리사이틀

GAC기획공연 - 피아노

선우예린 피아노 리사이틀

2020. 12. 30(수) 19: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